"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 총력전

광주·전남대학총장협, 지지 성명
"AI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부지·용수 공급 여건
시의회 '반도체산업 지원 조례'

2일 목포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광주·전남 대학 총장들이 반도체 특화단지의 광주·전남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정부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는 각 대학교 총장들이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는 한편 광주시의회에서도 특화단지 선정에 대비한 지역 반도체산업 지원조례를 발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타 면제 등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와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돼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체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지지하는 한 목소리를 내며, 시·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목포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는 K반도체 재도약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며 "AI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재생에너지로 전력 100% 생산) 실현이 가능한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와 함께 핵심 인프라인 용수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대학이 많아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대비한 지역 반도체산업 지원조례가 발의됐다.

이날 김나윤 광주시의원(북구6)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의결을 마치고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산업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지원·육성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도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유치·조성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의 효율적 입지와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발굴·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지원과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삼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 유치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광주시 '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 청년 모집

470명에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
공공기관·기업 등서 5개월 근무

광주시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을 통해 상반기 5개월간 일경험에 참여할 제13기 드림청년 470명을 모집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6년 동안 50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

올해는 상반기 470명(공공기관형·기업형 각 120명, 사회복지형·사회적가치형 각 80명, 청년창업기업형 70명), 하반기 340명, 직무심화트랙(10개월 참여-상반기 참여자 중 별도 선발해 하반기까지 진행) 110명 등 5개월 사업 참여를 기준으로 총 920명을 지원한다.

상반기 모집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1983년 3월 2일생부터 2004년 3월 1일생까지)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사전 접수자는 14일부터 16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진행되는 '드림만남의 날'에 참여해 드림터 상담과 유형별 면접을 거쳐 16일까지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23일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선발된 드림청년은 3월부터 7월까지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가치형, 청년창업기업형 등 5개 유형별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일경험을 진행한다.

일경험 근로에 따른 급여는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

신청 및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채널 '광주청년드림'(http://pf.kakao.com/_Sxkxhqxl)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통합지원기관(010-2012-1934)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상지 기자

윤명희 도의원 "에너지공대 역량 강화 정부 지원을"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사진)은 2일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에너지공대가 미래인재 양성 요람으로 우뚝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의 입시 경쟁률은 수시 12.6대 1, 정시 60.3대 1로 지난해에 이어 상위권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켄텍이 입학하기 어려운 이공계 최상위권 대학으로 인식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소재한 나주혁신도시는 인근 에너지밸리 산단과 함께 국가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고급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에너지 고급인력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교 첫 돌을 맞은 한국에너지공대의 높은 입시 경쟁률은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수한 인재가 대학에 입학해도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며 "한국에너지공대가 국가를 선도하는 에너지 연구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외에도 연구개발 기반 조성이나 R&D 국책 사업들의 전남 유치 등 에너지 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공무원들이 2일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열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도 '고부가' 정부 농촌융복합 공모사업 대거 선정

유통·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일자리 훈풍 기대

전남도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공모에 대거 선정되면서 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모 결과 각각 전국 3곳을 모집하는 '지구조성 사업' 분야에서 곡성군과 장흥군 등 2곳이 선정됐으며,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분야에선 광양시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은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해 농산물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유통·체험·관광의 3차 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한 곳에 4년 간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된 곡성군은 지역특화 품목인 토란을 활용해 '가공상품·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곡성 토란토란 마을축제', '융복합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한우를 활용해 '한우 가공 인프라 업그레이드',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창업지원', '체험·관광 융복합 산업관 조성' 등에 나선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융복합 인증사업자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한다.

한 곳에 2년 간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된 광양시는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인 광양빵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공제품 컨설팅', '공동마케팅 활성화',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의 가공과 체험·관광까지 접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현재까지 영광 찰보리, 고흥 유자, 순천 매실 지구 등 7곳이 농촌융복합산업 대상지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정 후 특화자원 매출액이 120억원 증가하고, 일자리 246개 창출 성과 등을 거두고 있다.

최황지 기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어린이 안전 인형극' 운영

광주소방안전본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미취학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위해 '어린이 안전 인형극'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 인형극은 유아, 어린이의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형극은 오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40분 가량 진행된다. 특히 불장난의 위험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생활 속 안전사고예방, 교통안전 등을 쉽게 설명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재미를 가미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집중도와 생활안전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예약은 체험관으로 전화(062-606-4804~6) 하면 된다.

한편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해 '어린이 안전 인형극'을 매주 1회 총 44회 실시했으며, 미취학 아동 3982명이 관람했다.

박상지 기자